

WEEKLY



startupreci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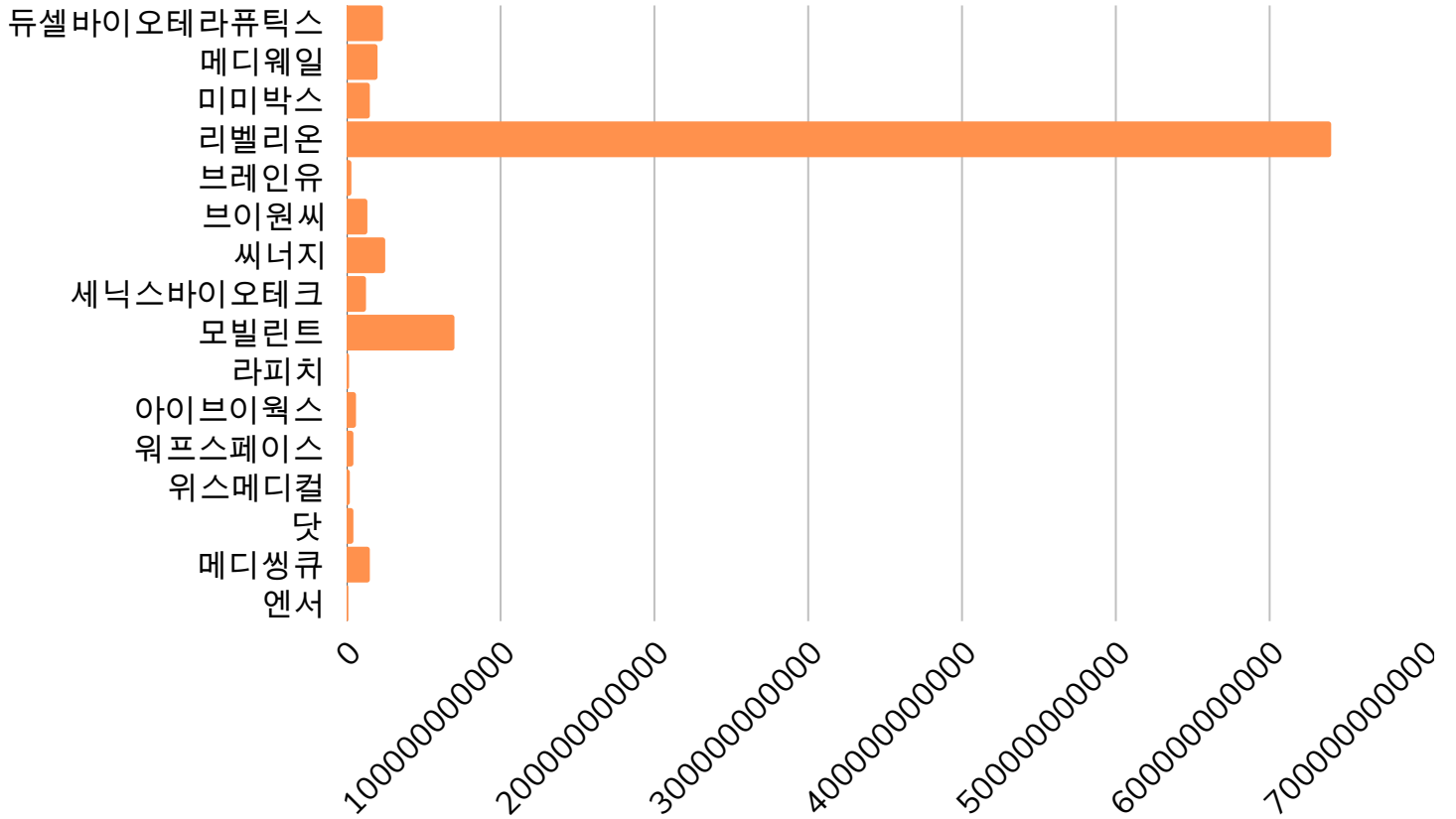
RECIPE FOR STARTUP

STARTUP RECI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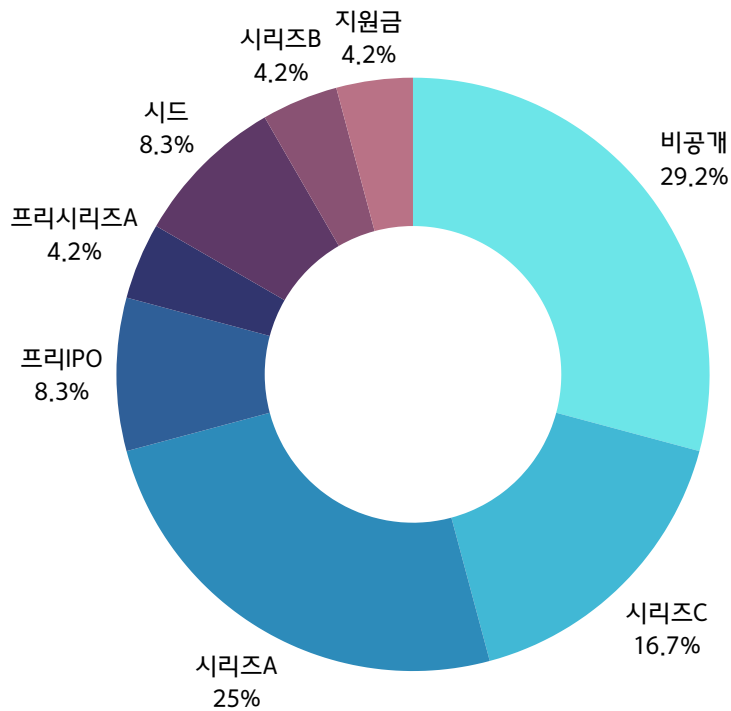
2026년 3월 30-4월 3일 주간 투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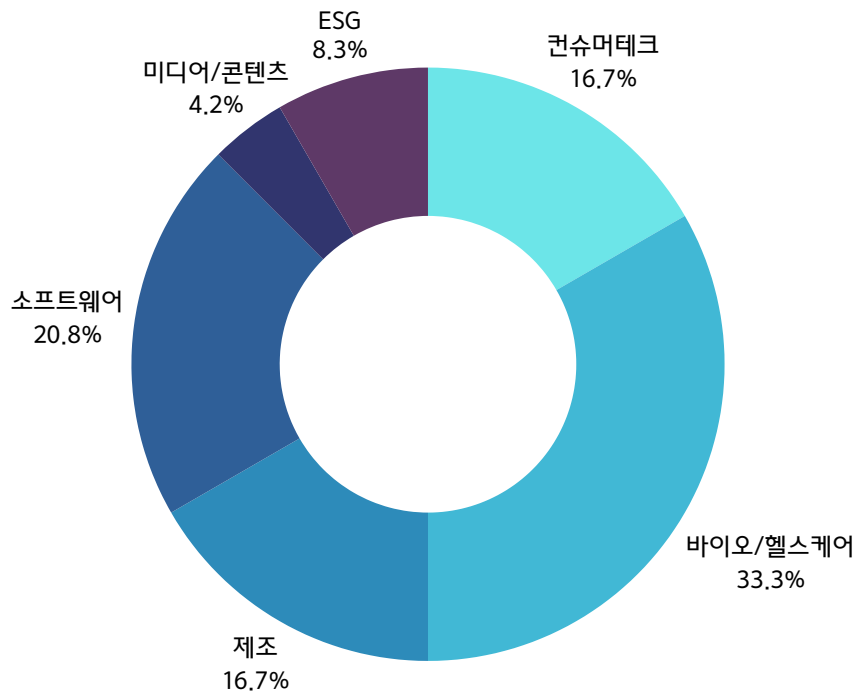
● 투자금



2026년 3월 30~4월 3일 주간에는 전체 투자 유치 기업수는 24개이며 이 가운데 투자액을 공개한 16개 기업이 8,565억원 투자를 유치했다.

단계별/분야별 투자 규모





이번주 단계별 투자를 살펴보면 시리즈A가 25%로 가장 높았지만 이어서 시리즈C가 16.7%, 프리IPO 역시 8.3%를 기록하는 등 후기 단계 투자가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분야별 투자 규모의 경우에는 상반기 내내 강세를 보였던 바이오/헬스케어가 33.3%를 나타냈고 소프트웨어 20.8%, 컨슈머테크와 제조가 각각 16.7%로 뒤를 이었다.

주요 투자 유치 기업

이번주 주요 투자 유치 기업으로 가장 눈길을 끈 건 역시 무려 6,400억원에 이르는 프리IPO 투자를 유치한 AI 반도체 기업인 리벨리온을 들 수 있다. 리벨리온이 전체 투자액을 건인한 가운데 역시 AI 반도체 기업인 모빌린트가 700억원 시리즈C를, 바이오 기업인 듀셀바이오테라퓨틱스가 235억원 시리즈C 투자를 유치했다.

듀셀바이오테라퓨틱스 : 235억원 시리즈C



인공 혈소판 개발 기업 듀셀바이오테라퓨틱스가 235억 원 규모의 시리즈C 투자를 유치하며 상업화 단계 진입을 위한 자금을 확보했다. 이번 투자에는 한화투자증권, 원익투자파트너스, 현대투자파트너스, 산은캐피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이 참여했다. 주요 투자자들은 응급 의료와 방위산업 분야에서 듀셀 기술의 확장 가능성에 주목했다. 듀셀은 확보한 자금을 생산 인프라 확충에 투입해 안양 공장에 50리터급 배양기를 추가하고, 향후 200리터급 장비를 도입해 월 1000리터 규모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독일 사토리우스사의 양산 배양기를 활용해 글로벌 기술 이전도 가능해 해외 시장 진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회사는 혈소판 용해물 기반 세포배양 첨가물 개발을 통해 매출원 확보에도 나서며, 독일 PL바이오사이언스와 200만 달러 규모 구매의향서를 체결해 올해 하반기 첫 매출 발생을 전망하고 있다. 이번 투자로 듀셀은 인공 혈소판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발전시키며 2029년까지 국민 공급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메디웨일 : 200억원 프리IPO



의료 인공지능 기업 메디웨일이 200억 원 규모의 프리IPO 투자를 유치하며 상장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9월 158억 원을 확보한 이후 1년 반 만의 추가 투자로, 누적 투자액은 500억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번 라운드는 프리미어파트너스와 KB인베스트먼트가 각각 40억 원을 주도했고, IMM인베스트먼트가 30억 원을 후속 투자하며 신뢰를 이어갔다. 조달 자금은 글로벌 임상과 인허가 비용, 운영자금에 활용된다. 메디웨일은 망막 사진을 분석해 심혈관 질환 위험을 예측하는 '닥터눈 CVD'를 주력으로 하며, 국내 100여 개 병·의원에 보급됐다. 기업가치는 2023년 350억 원에서 2024년 600억 원으로 상승했고, 이번 투자로 1000억 원 이상으로 평가된다. 회사는 이번 투자를 계기로 기술성평가를 신청해 내년 상반기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미래에셋증권을 주관사로 IPO 절차에 돌입한다.

미미박스 : 150억원



K-뷰티 글로벌 기업 미미박스(MBX)가 뉘(Noom) 정세주 의장과 샌드버드(Sendbird)·딜라이트(Delight) AI 김동신 대표가 공동 결성한 'ASQ 펀드'로부터 약 150억 원 규모의 그로스 투자를 유치했다. ASQ는 아시아와 미국을 연결하는 글로벌 창업가 네트워크를 목표로 하며, 이번 협업은 실리콘밸리와 뉴욕에서 활동해온 창업가들의 신뢰와 경험을 기반으로 성사됐다. 미미박스는 이번 자금을 통해 미국 내 오퍼레이션을 강화하고 브랜드 마케팅 확대, 리테일 채널 확장 등 북미 시장 공략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현재 매출의 65%가 미국에서 발생하는 만큼 글로벌 플랫폼으로도 약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ASQ는 이번 투자를 계기로 한국 뷰티 브랜드들의 북미 진출을 지원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K-뷰티 중심의 라이프스타일 산업 글로벌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업계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미미박스가 글로벌 카테고리 리더로 성장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리벨리온 : 6400억원 프리IPO

rebellions_

AI 반도체 스타트업 리벨리온이 총 6400억 원 규모의 프리 IPO 투자를 유치하며 기업가치를 3조4000억 원으로 평가받았다. 이번 라운드는 국민성장펀드와 산업은행이 3000억 원을 조성하고, 미래에셋그룹이 앵커 투자자로 참여해 민간 자본을 이끌었다. 이는 지난 5년간 시리즈C까지 확보한 누적 투자금과 맞먹는 규모로, 정부가 추진하는 'K-엔비디아 육성 프로젝트'의 첫 성과로 평가된다. 정부는 국산 NPU 생태계 구축을 통해 GPU 중심의 비용·전력 한계를 극복하고, AI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리벨리온은 이번 자금을 바탕으로 인재 채용을 확대하고 차세대 칩 '리벨100'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다. 또한 국내 반도체 밸류체인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해 한국 반도체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브레인유 : 30억원 시리즈A

BrainU

마취 모니터링 의료기기 스타트업 브레인유가 시리즈A 라운드에서 30억 원을 확보하며 성장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투자에는 원익투자파트너스와 중소기업은행이 참여했으며, 독자적 기술력과 글로벌 확장 가능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브레인유는 반려동물용 뇌파 기반 마취심도 측정기 'VET CAI'를 개발해 CES 2025 혁신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 제품은 비침습적·무제모 방식으로 반려동물의 마취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투자로 브레인유는 의료기기 분야에서 사업 확장을 본격화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모색할 계획이다.

브이원씨 : 134억원 프리시리즈A

 **clobe.ai**

스타트업 브이원씨가 기업 재무관리 솔루션 '클로브AI'를 앞세워 134억 원 규모의 프리A 라운드 투자를 확보했다. 이번 투자에는 베이스벤처스와 DSC인베스트먼트가 참여했으며, 브이원씨의 회계·재무 소프트웨어 운영 경험과 안정적인 대출 집행 능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클로브AI는 계좌·카드·세금계산서 데이터를 통합해 실시간 자금일보와 손익 분석을 제공하며, 출시 1년 반 만에 1만 개 이상의 법인 고객을 확보했다. 또한 자금조달 플랫폼 '클로브금융'을 통해 누적 대출액 1,100억 원을 기록하며 금융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브이원씨는 하나금융그룹과의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대상 금융 환경 개선에도 나서고 있으며, AI 기반 신용평가 모델 연구 등 고도화된 B2B 금융 서비스 개발을 추진 중이다. 도은욱 대표는 B2B 시장 혁신이야말로 한국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씨너지 : 250억원 시리즈A



환경 원자재 거래 플랫폼 기업 씨너지가 350억 원 규모 펀딩을 추진하며 스틱인베스트먼트를 비롯한 주요 투자사로부터 자금을 확보했다. 스틱은 100억 원을 투자하며 리딩 역할을 맡았고, 키움인베스트먼트와 삼천리인베스트먼트가 각각 50억 원, 30억 원을 투입했다. 현대자동차, 포스코 기술투자 등 전략적 투자자도 참여해 씨너지는 1차 클로징에서 250억 원을 확보했으며, 2차 클로징을 통해 최대 350억 원까지 조달할 계획이다. 이번 자금은 베트남 클린에너지 기업 인수에 활용될 예정으로, 인수 완료 시 씨너지의 공급망관리(SCM) 기능과 현지 네트워크가 결합돼 글로벌 RE100 기업 대상 공급 역량이 강화될 전망이다. 씨너지는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인증서와 탄소배출권을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현재 100여 개국에서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최근에는 공급망(Scope3) 대응까지 확장해 글로벌 기업의 규제 대응을 돕고 있으며, 미국 실리콘밸리에 거점을 마련해 현지 시장 공략도 본격화하고 있다. REC와 탄소배출권 시장의 성장세가 씨너지의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세닉스바이오테크 : 125억 원 시리즈B



세닉스바이오테크가 약 125억 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 유치를 마무리하며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 이번 라운드에는 SBI인베스트먼트, 파트너스인베스트먼트, 아주IB투자 등 주요 투자사가 참여했으며, 기존 투자사 중 다수가 후속 투자에 나서 기술성과 사업성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했다. 세닉스는 산화세륨 기반 나노자임 치료제 CX213을 핵심 파이프라인으로 개발 중이며, 해당 후보물질은 미국 임상 2상 진입을 앞두고 있다. 후속 프로그램인 CX301도 올해 하반기 임상시험계획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회사는 이번 투자금을 CX213의 글로벌 임상 가속화와 완제의약품 생산을 위한 GMP 시설 구축에 집중 투입해 상업화 기반을 조기에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현재 세닉스는 복수의 글로벌 제약사와 기술이전 및 공동개발을 위한 실사를 진행 중이며, 이번 투자 유치를 계기로 해외 파트너십 확대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회사는 나노자임 플랫폼을 기반으로 중증 염증 질환 치료제 분야에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며 글로벌 바이오 기업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모빌린트 : 700억 원 시리즈C



AI 반도체 기업 모빌린트가 700억 원 규모의 시리즈C 투자를 확보하며 엡지 AI 반도체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라운드에는 프랙시 스캐피탈파트너스, 포스코기술투자, 컴퍼니케이파트너스 등이 참여했으며, 온디바이스 AI 수요 확대 흐름 속에서 모빌린트의 기술 경쟁력이 투자 판단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모빌린트는 국내에서 엡지 환경에서 대규모언어모델(LLM)을 구동할 수 있는 고성능 NPU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꼽힌다. 제조 설비·센서 등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판단·제어할 수 있어, 즉시성이 중요한 산업 AI 분야에서 강점을 확보했다. 회사는 자체 설계한 AI 가속기 칩 ‘에리스(ARIES)’와 AI SoC ‘레귤러스(REGULUS)’를 중심으로 엡지 AI 시장을 공략하고 있으며, MLX-A1 등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통합 솔루션을 통해 제조·리테일·보안 분야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AI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글로벌 IT 제조사 인텔스와 협력해 AI 반도체 기반 솔루션 공동 개발과 양산을 추진 중이며, 일부 프로젝트는 이미 상용화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빌린트는 이번 투자금을 차세대 NPU 아키텍처 고도화, 양산·공급 체계 확장, 글로벌 시장 진출, NPU 생태계 강화에 집중 투입해 풀스택 AI 반도체 기업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라피치 : 15억원



대화형 인공지능 전문기업 라피치가 최근 15억 원 규모의 투자를 추가로 확보하며 누적 투자금 75억 원을 달성했다. 이번 투자에는 지난해 시리즈 A에 참여했던 캡스톤 스케일업 투자조합이 다시 참여해 성장 가능성을 재확인했다. 핵심 배경으로는 네트워크 인프라·통신 전문기업 서경엔씨에스 인수가 꼽히며, 이를 통해 라피치는 인프라 설계부터 지능형 컨택 센터(AICC) 구축·운영까지 아우르는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갖췄다. AI 소프트웨어와 네트워크 역량을 결합해 고객사의 구축 기간을 단축하고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평가된다. 라피치는 중소벤처기업부 스케일업 팀스에 선정됐고, 주력 제품 ‘ConvAI’가 조달청 우수 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며 공공 시장 진출 기반도 마련했다. 김경희 대표는 확보된 자금을 차세대 솔루션 고도화에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이브이웍스 : 60억원 프리IPO



Intellectual
Value
Works

전력반도체 소재 스타트업 아이브이웍스가 60억 원 규모의 프리 IPO 투자를 마무리하며 누적 투자금 450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라운드에는 기존 투자자인 아이엠투자파트너스와 인라이트벤처스가 후속 참여해 성장 가능성을 다시 입증했다. 회사는 확보한 자금을 AI 서버 전력 변환과 방산 분야 수요 대응을 위한 양산 인프라 확충에 집중할 계획이다. 아이브이웍스는 독자 에피웨이퍼 기술을 기반으로 접촉 저항을 크게 낮춘 소재 'reGaN'을 세계 유일하게 양산 공급하며 글로벌 주요 파운드리에 납품해 왔다. 최근 품질 인증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양산 공급에 돌입한 가운데, 이번 투자 유치를 계기로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절차에도 착수했다.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며, 기술성 평가를 거쳐 상장 예비심사 청구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워프스페이스 : 43억원 시리즈A

WARP SPACE
Drive Your Universe

AI 캐릭터 채팅 플랫폼 '케이브덕'을 운영하는 워프스페이스가 43억 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 이번 라운드는 아이디벤처스가 주도했으며 코나벤처파트너스, 메이플투자파트너스, 파라마운트인베스트먼트가 공동 참여했다. 케이브덕은 이용자가 직접 AI 캐릭터를 제작하고 대화를 나누며, 캐릭터 인기에 따라 크리에이터가 수익을 얻는 구조를 갖췄다. 현재 월간 1만 명 이상의 크리에이터가 활동 중이며, 월간 대화량은 3천만 건을 넘어섰다. 누적 가입자는 100만 명을 돌파했고, 전체 이용자의 60% 이상이 해외 유저로 글로벌 시장에서 빠른 성장을 입증했다. 워프스페이스는 이번 투자금을 AI 기술 고도화와 해외 시장 확장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캐릭터 대화의 몰입도를 높이는 기술 최적화와 현지화 전략을 추진하고, 핵심 인력 채용도 확대해 글로벌 대표 플랫폼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위스메디컬 : 20억원

WiSMedical

수면 모니터링 기술을 개발하는 헬스케어 스타트업 위스메디컬이 월드옥타가 주최한 '2026 글로벌 AI 스타트업 대회'에서 공동 우승을 차지하며 미국 애틀랜타 기반 투자사 프로베스트 파트너스로부터 20억 원 규모의 투자를 확보했다. 위스메디컬은 피부 부착형 패치 장치를 통해 수면 데이터를 측정하고 AI 분석으로 수면 상태를 진단하는 기술을 선보였다. 병원 중심의 수면다원검사를 가정에서도 가능하게 하는 점이 차별화 요소로 평가됐다. 이번 투자 결정은 기술 경쟁력과 글로벌 시장 확장 가능성을 높게 본 결과로, 특히 미국 시장 진출 잠재력이 중요한 기준이 됐다. 위스메디컬은 이번 자금을 기반으로 기술 고도화와 해외 시장 진출 전략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번 사례는 한국 스타트업이 글로벌 네트워크와 연결돼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주목된다.

닷 : 43억원

• dot ::

점자 기반 기술로 시각장애인용 제품을 개발하는 소셜벤처 닷이 최근 43억 원 규모의 모험자본 투자를 유치했다. 지난해 상장 도전을 철회했던 닷은 이번 투자에서도 직전 라운드와 동일한 기업가치를 유지하며 시장의 관심을 끌었다. 닷은 촉각 디스플레이 '닷패드'를 활용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국내 최초로 공공기관과 교통시설에 공급하며 글로벌 사업 성과를 확대하고 있다. CES 2023에서 접근성 부문 최고혁신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2023년 시리즈 B에서 134억 원을 확보해 누적 투자금은 300억 원에 달한다. 이번 투자로 현금을 확보한 닷은 시각장애인용 키오스크의 해외 사업 성과가 가시화되는 흐름 속에서 IPO 재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메디씽큐 : 150억원 시리즈C

MediThinQ

의료용 AR 글라스를 개발하는 메디씽큐가 상장을 앞두고 시리즈C 투자에서 150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라운드는 기업가치 약 1500억 원 수준에서 진행됐으며, 투자금 납입만을 남겨둔 상태다. 직전 라운드를 이끈 파트너스인베스트먼트가 후속 투자자로 참여했고, 코너스톤투자파트너스와 머니볼벤처스 등이 새롭게 합류했다. 메디씽큐는 2018년 설립된 의료용 웨어러블 디스플레이 기업으로, 집도의가 모니터를 보지 않고도 수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AR 안경을 상용화해 글로벌 계약을 확대하고 있다. 회사는 내년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IPO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며, 필요 시 프리IPO 라운드를 추가로 검토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업계에서는 제품 상용화와 판매 계약이 이어지는 점을 근거로 높은 기업가치가 형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AI 기반 치매 조기진단 기술을 개발하는 엔서가 시리즈A 브릿지 라운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초기 투자에 참여했던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와 인라이트벤처스가 약 10억 원 규모의 후속 투자를 집행하며 기술성과 성장 가능성에 다시 한 번 신뢰를 보였다. 엔서는 광주과학기술원 연구실에서 출발한 스타트업으로, 후각 자극과 인지 반응을 분석하는 AI 진단 기기를 개발해 기존 문진이나 영상 검사로 구분하기 어려운 초기 치매를 선별하는 데 강점을 갖는다. 대표 제품인 N1과 알츠스니프는 간편한 방식으로 치매 위험도를 측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딥러닝 기반 분석 기술을 통해 높은 정확도를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회사는 올해 임상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해 제품 상용화 기반을 다지고, 장기적으로 해외 시장 진출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2019년 설립 이후 누적 투자 유치 규모를 확대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주간 체크 포인트

중기부, AI 정책 통합 브랜드 모두의 'AI+' 공개=중소벤처기업부가 다양한 AI 정책·지원사업들을 하나의 브랜드로 묶는 AI 정책 통합브랜드 모두의 'AI+'를 개발하고 본격 홍보에 나선다. 중기부는 AI 정책을 하나의 브랜드로 통합해 정책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하고 수요자인 기업과 국민이 정책을 더욱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통합브랜드 기반의 정책 홍보체계를 구축했다. AI+는 기업에 AI를 더하여 생산·매출 등 경영성과가 올라간다(+)는 중의적 표현을 담고 있다.

2026년 3월 30-4월 3일 투자 현황

기업명	분야	투자금	투자단계	투자사
미미박스	케이뷰티	150억원	기타(비공개)	ASQ펀드
듀셀바이오테라퓨틱스	인공 혈소판 개발	235억원	시리즈C	한화투자증권, 원익투자파트너스, 현대투자파트너스, 산은캐피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메디웨일	의료 AI	200억원	프리IPO	프리미어파트너스, KB인베스트먼트, IMM인베스트먼트, 퀴드자산운용, 하나벤처스, 에이온인베스트먼트
메르시코	비건 클린뷰티 브랜드	비공개	기타(비공개)	그랜드벤처스
브레인유	마취 모니터링 의료 기기	30억원	시리즈A	원익투자파트너스, 중소기업은행
리벨리온	AI 반도체	6400억원	프리IPO	국민성장펀드, 한국산업은행, 미래에셋그룹
사운드블헬스	소변 소리 분석 AI	비공개	기타(비공개)	네이버D2SF
누비랩	음식영양분석	비공개	시리즈A	네이버D2SF
브이원씨	재무관리 SaaS	134억원	프리시리즈A	베이스벤처스, DSC인베스트먼트
데일리쿠키	지식 콘텐츠	비공개	시드	본엔젤스벤처파트너스, 스트롱벤처스
세닉스바이오테크	나노의학	125억원	시리즈B	SBI인베스트먼트, 파트너스인베스트먼트, 아주IB투자, CKD창업투자, SL인베스트먼트, 인터밸류인베스트먼트, 스케일업파트너스
지엠엑스	차세대 항암 신약	비공개	지원금	팁스
씨너지	환경원자재 거래 플랫폼	250억원	시리즈A	스틱인베스트먼트, 키움인베스트먼트, 삼천리인베스트먼트, 현대자동차,

				포스코기술투자, 에이스
월코에이펙스	전자소재 전문	비공개	시리즈A	두산신기술투자조합1호
모빌린트	AI 반도체	700억원	시리즈C	프랙시스캐피탈파트너스, 포스코기술투자, 컴퍼니케이파트너스
아이브이웍스	전력반도체 소재	60억원	프리IPO	아이엠투자파트너스, 인라이트벤처스
라피치	대화형 인공지능	15억원	기타(비공개)	캡스톤 스케일업 투자조합
메이사	공간정보 AI	비공개	기타(비공개)	타임폴리오자산운용
워프스페이스	AI 캐릭터 채팅 플랫폼	43억원	시리즈A	아이디벤처스, 코나벤처파트너스, 메이플투자파트너스, 파라마운트인베스트먼트
위스메디컬	바이오센서·헬스케어 솔루션	20억원	기타(비공개)	프로베스트파트너스
닷	점자 기술 개발	43억원	기타(비공개)	
이트어스	통제비티 이너뷰티	비공개	시드	스트롱벤처스
메디씽큐	의료용 증강현실 글라스	150억원	시리즈C	파트너스인베스트먼트, 코너스톤투자파트너, 머니볼벤처스
엔서	치매 조기진단	10억원	시리즈A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 인라이트벤처스

스타트업레시피 | www.startuprecipe.co.kr

기사 제보 : news@startuprecipe.co.kr

주소 :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757-5 마곡나루역 프라이빗타워 1, 604호

전화 : 070-4048-4013